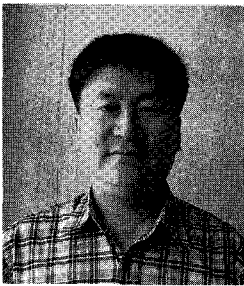


집하장의 기능 살려야 양계업이 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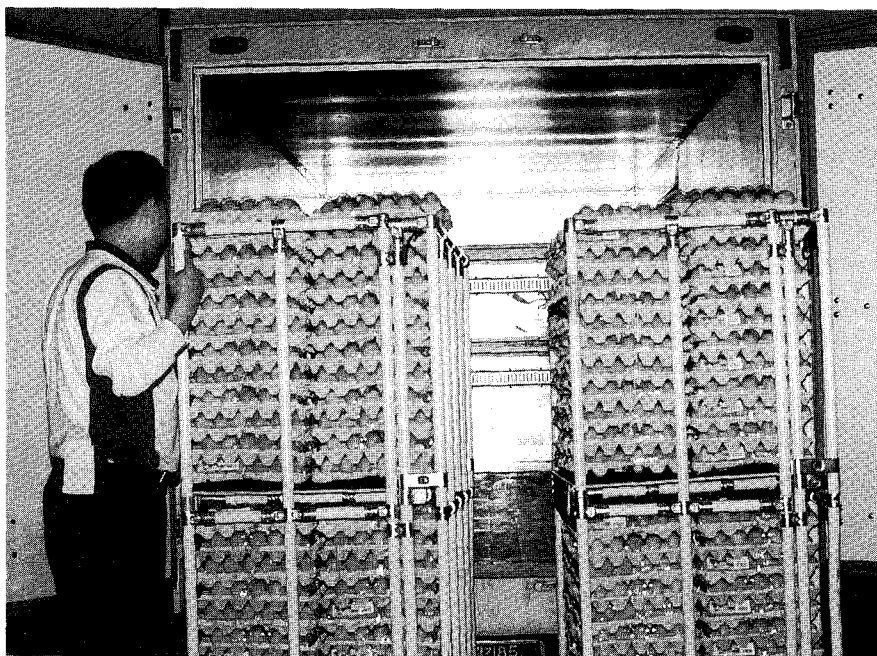
조 성 일
(본회 동두천지부장)

양계(채란)산업의 발전을 보면 괄목할 만큼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계농가는 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는 발전을 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은 2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는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계란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라면이 3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400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약 13배 이상 인상되었으나 계란의 소비자 가격은 20년 전에 30원하던 것이 현재는 100원에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약 3배 이상밖에 인상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타 다른 공산품 및 식료품은 몇십 배씩 상승되었으나 계란만큼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양계농가는 생산노력에 비하여 생산비가 안되므로 서둘러 설비를 자동화하여 닭 사육 숫자를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하여 생산량에 대한 계란 개당 비용을 줄이면서 손익구조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계란의 유통구조는 생산은 양계농가가 책임지고 유통은 계란상인이 주도해 오게되었다. 이렇게 생산환경이 소량생산에서 대량생산으로 전환되면서 상인들은 양계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출하시기를 이용하여 산지계란가격을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

양계농가는 계란의 특성상 생명체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산란일자로부터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계란의 진부화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계란의 덤핑과 채권확보와는 상관없이 판매하여 양계농가의 손실이 가중되어갔다. 양계농가는 계란에 대한 제 가격을 받지 못하였으며, 양계농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런 상인들의 횡포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80년대에 들어와서 몇몇 양계농가가 주축이 되어 자생적으로 양계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양계조합은 지역별로 설립하였는데 2002년 말 기준해서 전국에 6개 양계조합이 있었으며 각 양계조합들은 계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산지에 집하장을 설립하여 양계농가의 계란을 출하 받아 계란판매를 하게 되었다.



1. 집하장의 농가 계란가격 안정화 기능 탁월

이렇게 설립된 양계조합들은 정부의 정책사업의 일환과 양계조합사업과 맞물려 1980대 후반부터 산지에 집하장을 개설하였으며 개설 초기에는 양계농가의 계란을 출하 받아 선별을 하고 계란판매를 하였으나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의 계란을 출하 받으면서 양계조합의 집하장은 계란을 땅에 묻거나 저온저장 하였다가 판매시점에서 제대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1980년대의 일반적인 계란의 유통구조는 양계농가→대상인→소매상인→소매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계란의 유통구조에서 양계조합들은

유통구조의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리점격인 직매장을 모집하여 운영하기도하고, 소량의 계란을 직접 소매점에 납품하기도 하였으나 일일 계란출하량에 대한 전망을 판매하지 못하여 결국은 기존농가에서 하는 계란의 유통구조를 답습하게 되었다. 그래서 양계조합이 설립된 후 계란의 유통구조를 보면 양계농가→집하장→대상인(소상인)→소매점→소비자로 이어지는 단계인데 양계조합의 집하장 이전에 비하여 유통단계가 양계조합집하장의 한 단계를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집하장 운영에 따른 경비를 계란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야만 하는데 계란은 그 동안의 관례상 대한양계협회가 발족하면서 대한양계협회에서 산지가격을 발표하면 그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어 거래가 되어왔는데 양계조합의 집하장 계란이 품질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농장거래 조건보다 이로운 점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란가격

을 높게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집하장 운영에 고정경비부담에 따른 수익구조변경이 어려운 관계로 비용의 일부는 출하 양계농가의 계란대금에서 공제가 되었으며 나머지 비용은 집하장손실로 남게 되었다.

또한 집하장은 계란가격이 상승하면 과소한 재고물량과 출하량 감소로 손실이 가중되었으며 가격하락시기와 소비둔화시기에는 상인들이 집하장계란을 매입하지 않아 과다한 계란재고보유와 양계농가의 계란출하시점의 가격과 판매시점의 가격차이로 인한 손실을 양계조합에서 부담하여 왔기 때문에 양계조합의 경영부실의 원인이 있었으며 다른 측면으로는 양계농가와 상인이 직거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란의 출하시기와 판매시기에 따른 진부화 때문에 거래조건의 완화로 인한 채권의 미 확보된 시점에서 계란이 판매됨으로서 부실채권의 증가로 인한 손실이 가중되어왔다.

반면에 그 동안의 집하장 역할은 채란농가의 안정적인 계란 출하와 채권의 부실로 인한 손실을 줄였으며, 집하장 주변 양계농가는 상인과 거래할 때 집하장 정산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계란 거래가격이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는 등 계란의 산지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집하장 역할의 장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양계조합들은 집하장의 판매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경제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집하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집하장을 통합하여 생산성을 높여 고정비용을 낮추어 집하장 손익구조를 개선하여 왔으며, 계란의 유통구조를 양계농가→집하장→소매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직거래체제로 전환(서경양계 북부 집하장, 남부집하장은 100% 직거래하고 대구 경북양계 대구집하장 100% 직거래하며 광주 전남양계 목포집하장 일부직거래로 전환) 하는 단계로 집하장의 판매사업이 계란의 유통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양계조합들이 이렇게 판매사업방식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각 조합들의 경영진의 노력과 농협중앙회의 지도로 이러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6개 양계조합의 부실규모가 크므로 일부조합은 영업 정지되고 일부조합은 통합 권고를 받음으로서 업무의 축소로 인한 양계산업이 위축되어 양계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 동안 계란시장은 상인이 소비시장을 전담하여 양계농가와 상생(相生)한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양계조합들의 역할은 생산자단체로서 양계산물의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양계농가는 높은 가격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중간유통마진을 없애는 역할을 하여 상인들을 견제하여 양계농가를 보호하고 양계생산기반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집하장 기능 상실은 양계농가의 몰락

결론적으로 각 양계조합들이 품목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양계산물에 대하여 상인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조합원에게 양질의 양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도사업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은 자금조달과

신용사업수익의 일부를 경제사업으로 환원되어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고 현재 각 양계조합의 집하장이 하고있는 직거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익구조를 개선하고 양계전문조합의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 양계조합을 발전시켜나 가야 할 것이다.

즉 양계조합은 기존에 신용사업위주의 조합이 아니라 경제사업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이 필요한 조합으로 거듭나는 조합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집하장의 판매사업은 유통단계를 양계농장→집하장→소매점→소비자로 이어지는 단계로 축소하여 양계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양계농가

는 높은 가격을 받아 주어 양계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양계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양계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상인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가공사업은 등외양계산물 및 양질의 양계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양계조합들의 경영개선명령을 보면 양계농민, 각 양계조합들의 경영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자대인 손익구조만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줄이려고 하는데 양계농민들의 처한 환경과 각 양계조합들의 구조조정을 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양계산업이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관계당국에게 바란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